

광주·전남 서비스업 경쟁력 '추락'

광주·전남지역 서비스업 생산액은 연간 23조원,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94만7천명으로 지역내총생산(GRDP)의 46%와 전체 취업자의 6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 서비스업은 2000년대 들어 성장률이 3%대 밑으로 하락한 데다 지역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율도 35%대로 10년사이 절반가량 줄어 들었다.

특히 노동생산성과 매출액, 영업이익 등 전반적인 경쟁력 측면에서도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드러나 지역경제의 성장동력 확보 측면에서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29일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서비스업의 경쟁력 현황'에 따르면 2005년을 기준

성장률 3%·경제 기여율 35%대... 10년새 절반 줄어

1인당 생산성도 전국평균보다 400만원가량 낮아

으로 지역내 서비스업 생산액은 총 23조원으로 GRDP의 46.0%를 차지해 제조업(31.6%)을 제치고 지역내 최대업종으로 확인됐다. 서비스업 취업자수도 94만7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수의 61.6%를 기록, 농림어업(18.7%), 제조업(10.4%), 건설업(9.1%)을 크게 앞섰다.

하지만 서비스업의 성장률은 1995년 이전 연 9%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2.8%로 급락했으며,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율도 1996~2000년에는 68.7%였으나 2001~2005년에는 35.3%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제조업 등 타 업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도 원인이지만 금융보험(-1.4%), 통신(1.1%), 교육(-0.8%), 오락문화(1.3%) 등 생산자 및 개인 서비스 성장률이 둔화했기 때문이다.

경쟁력 측면에서 볼때도 광주지역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연간 1인당 부가가치)은 2천233만원, 전남은 2천646만원으로 전국 평균(2천734만원)에 비해 최대 400만원 가량 낮았다.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사업체 비중은 광주·전남이 52.9%, 이 들 업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수 비중은 22.6%로 전국 평균(48.5%, 18.6%)에 비해 높게 나타나 타 지역에 비해 영세함을 반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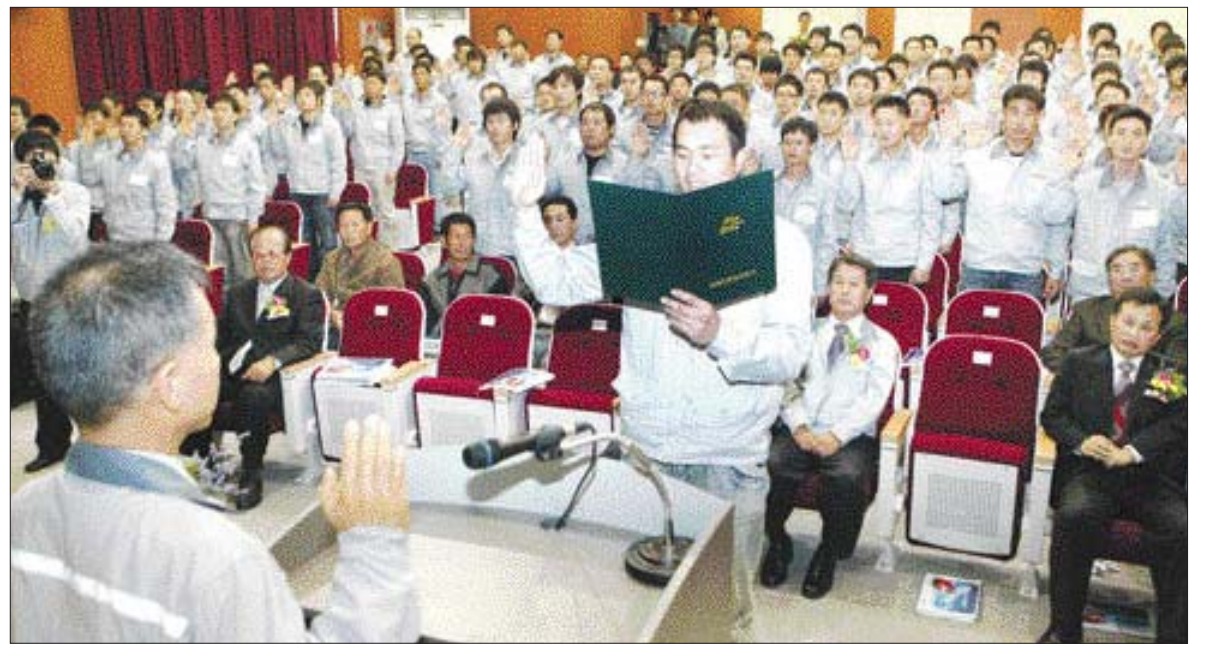
한국은행은 이에 따라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가정 '서비스산업 지원센터'를 설치, 서비스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꾀하고 지역대학내 문화콘텐츠·디자인·관광레저 등 서비스업 관련 학과와 전문성 제고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박지연 조사역은 "고용창출 효과 및 성장 잠재력이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 지역 서비스업의 생산성과 특화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입체 비중은 광주·전남이 52.9%, 이 들 업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수 비중은 22.6%로 전국 평균(48.5%, 18.6%)에 비해 높게 나타나 타 지역에 비해 영세함을 반증했다."

한국은행은 이에 따라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가정 '서비스산업 지원센터'를 설치, 서비스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꾀하고 지역대학내 문화콘텐츠·디자인·관광레저 등 서비스업 관련 학과와 전문성 제고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박지연 조사역은 "고용창출 효과 및 성장 잠재력이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 지역 서비스업의 생산성과 특화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입체 비중은 광주·전남이 52.9%, 이 들 업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수 비중은 22.6%로 전국 평균(48.5%, 18.6%)에 비해 높게 나타나 타 지역에 비해 영세함을 반증했다."

대한조선소 기술교육원 개원



해남군 화원면 해남조선소 기술교육원 1기 교육생들이 29일 입교식을 갖고 있다. 대한조선소는 이날 박재영 부회장과 이상면 전남도 정무부지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교육원 및 산업기술연구소 개원식을 가졌다. 기술교육원은 172명의 1기 교육생을 선발, 3개월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대한조선 협력업체에 투입하게 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007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

광주~베이징 신규 취항

보성녹차 최우수·광양 홍쌍리 매실 우수상

아시아항공 오늘부터

'2007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에서 보성녹차가 최우수상, 광양 홍쌍리매실가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은 기존 '농산물 파워브랜드 대전'과 '전통식품 베스트 5 선발대회'를 올해 통합한 것으로, 원예농식품과 전통식품의 품질을 평가해 시상하는 행사다.

주요 수상 브랜드는 원예부문의 경우 ▲ 대상(대통령상)-안동사과 ▲ 금상(국무총리상)-서산 6쪽마늘 ▲ 은상(농림부장관상)-음성 청결고추,

굿뜨래, 햇사래 등이며, 전통식품 부문에서는 ▲ 최우수상(농림부장관상)-순창 고추장, 보성 녹차, 명실상주 ▲ 우수상(농수산물유통공사장상)-안동자한과, 홍쌍리매실가, 제비원, 가을빛고운, 메주와 첼리스트 등이 뽑혔다.

이들 브랜드는 시·도 추천과 인지도 조사, 경영체 심사, 품질 검사, 중우 ▲ 대상(대통령상)-안동사과 ▲ 금상(국무총리상)-서산 6쪽마늘 ▲ 은상(농림부장관상)-음성 청결고추,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아시아항공(대표 강주안)은 30일부터 광주시와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연결하는 정기 국제노선에 신규 취항한다. 광주~베이징 노선은 화·금요일 주 2회 운항하며, 운항편은 오후 3시에 광주공항을 출발해 당일 오후 4시25분(중국 현지시간)에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한다. 베이징에서는 오전 10시55분(중국 현지시간)에 출발, 오후 2시에 광주공항에 도착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서남권 생산도시 발돋움 제조업 일자리 창출해야"

광주상의 고용 포럼

광주·전남지역이 서남권 생산도시로 발돋움하고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노동력의 취업률, 일자리의 질, 인재의 역내유지율 등 세가지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상공회의소 주최로 30일 광주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리는 제 10차 광주·전남 고용포럼에 연구발표자로 참여한 영광석(목포과학대) 교수는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형 교수의 '광주·전남지역 구인·구직선호와 노동시장 성과분석'이라는 발제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신규 노동력 중 69.5%가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겠다고 응답, 최근 극심한 청년실업난을 그대로 반영했다.

또 지역 인재의 심각한 역외유출로 인해 향후 광주·전남 인적 자원의 기반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인재 역내유지율은

2003년 52.0%에서 2005년 48.3%로 감소했고, 전남은 같은 기간 60.8%에서 44.8%로 전국 최고 감소율을 기록했다.

형 교수는 "신규 또는 경력자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임금·복지수준 등 인력수요가 반이 취약한데 기인한다"면서 "더욱이 한국전력 등 광주·전남 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인 공공기관의 경우 신규나 경력자 채용 때 광주·전남 인재를 우선 고려할 가능성은 8%대에 그쳐 취업기회 확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전문대학·대학 졸업자의 취업률도 전국 평균(73.8%)보다 5.4%포인트 낮은 68.4%로, 전북(65.0%)에 이어 꼴찌에서 두번째였다.

형 교수는 "주요 노동력 수요 기반인 제조업의 활성화를 통해 관측은 일자리를 창출, 지역인재가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농축산물 무역적자 80억弗

국제 곡물가격 폭등 여파

연말 100억弗 넘어설 듯

세계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수입 육류 및 과일수요가 늘면서 농축산물 무역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적자규모는 사상 처음 1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29일 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시스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농축산물 97억1천477만달러어치(2천29만5천t)를 수입하고 16억9천428만달러어치(104만8천t)를 수출해 결과적으로 80억2천49만달러의 적자를 냈다.

광주상의 내달 12일 후임회장 선출

광주상공회의소가 마련한 새로운 정관이 광주시의 인가절차를 통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임회장 선거를 위한 보궐선거에 지역 경제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광주상의는 지난 25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개정된 새 정관에 대해 광주시에 인가를 요청했다. 광주시는 늦어도 30일까지 정관을 검토한 뒤

를 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수입액은 21.8% 늘어난 반면 수출액은 9.2% 늘어나는데 그쳐 적자규모가 작년(64억2천537만달러)보다 24.8%나 커졌다. 이 증가율이 연말까지 유지될 경우 올해 농축산물 적자는 110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00억달러선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의 연간 농축산물 적자는 ▲2002년 61억7천695만달러 ▲2003년 66억4천548만달러 ▲2004년 72억7천872만달러 ▲2005년 76억8천633만달러 ▲2006년 86억8천538만달러 등으로 해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연황뉴스

"주택시장 침체 극복에 힘 쏟겠다"

신임 박지영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회장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회원사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데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29일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에 취임한 박지영(62) 모아건설(주) 대표는 "현재 광주·전남 등 지방 주택시장이 고사직전에 처해 있는 만큼 회원사들의 단합과 결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또 "지방의 경우 부동산투기나 '거품'의 우려가 없는 데도 정부가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고수하면서 회원사들이 심각

한 경영난에 직면했다"며 "지방 주택시장 회복과 회원사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보성 출신으로, 지난 25년간 주택건설업에 종사하면서 광주·전남 등에 1만4천세대의 주택을 공급했다. 현재 광주상의의 감사, 대한건설협회 대의원 및 윤리위원, 건설경제조합 대의원 등을 맡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

남양프리미엄 발효유

'자연의' 불가리스 출시



남양유업(대표 박건호)은 장 건강을 도와 변비 예방 등에 효과를 줄 수 있는 프리미엄 발효유 '자연의 시작 불가리스'(150ml)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복합유산균과 함께 장내 도달률, 생존율이 월등히 높은 천연과일유래유산균을 발효시켜 배변은 물론 변비 등 장 기능 개선효과를 더욱 높였다.

시판가는 150ml 1천~1천200원. 제품주문 및 문의는 (02) 734-1305. /이종태기자 jilee@

까다로운 토끼씨가 선택한
세기보청기
난청해결전문가 세기보청기
미세한 소리는 들리지 않는 잠깐치시청 기술로도 난청을 없애줍니다.

3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dogstar.co.kr

1588-8499 080-222-0100